

다음 주, 장마 계속 이어져 습하고 더워

정체전선·저기압 영향...전국 강하고 많은 비 낮 기온 상승...습도 높아 폭염특보, 열대야

이번 주 후반(29일~7월2일)과 다음 주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한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상청 정례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체전선이 중부지방부터 남하하면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9일에는 정체전선상 저기압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차 남하하기 때문에 강수 구름대가 가장 많이 정체하는 지역은 전라권과 제주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3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250mm 이상)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상권, 서해5도 50~120mm(많은 곳 150mm 이상) ▲강원 동해안 20~80mm ▲울릉도·독도 5~30mm다.

특히 29일 낮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30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6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장맛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이 기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청 예보를 참고해야겠다.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공사장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및 하천 범람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날부터 이어지는 강수 구조는 정

체전선이 우리나라 남쪽에서 동쪽으로 물러나는 과정에 기인한다. 기상청은 이 구조가 동서로 나란하게 배치돼,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일반적 정체전선에 따른 강수 구조와 다르다고 분석했다.

박 예보분석관은 "서해상에서 차고 건조한 상층의 공기들이 대기 하층으로 침강하면서 매우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달했다"며 "대기 하층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상하며 대기 불안정성이 강한 중규모 대류운들이 상당히 크게 발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잦은 비가 내리겠다.

이후 다음 달 4일에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주 후반까지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시 전국적으로 기온이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를 오르내리겠다.

특히 강한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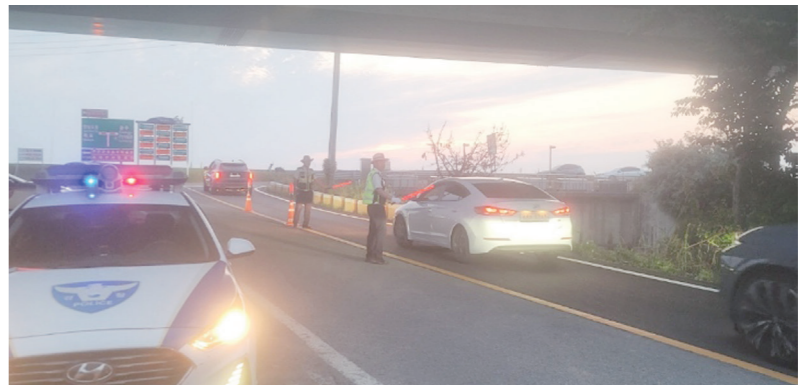
박 예보분석관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저·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햇볕에 의해서 낮 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 특보 가능성이 있고, 습도가 높아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전했다.

또 기상청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전국 낙뢰 횟수를 분석한 결과, 총 6011회의 낙뢰가 잦아지고 밝혔다.

박 예보분석관은 "전날에는 전국에 총 3352회, 이날 오전까지는 총 2659회의 낙뢰가 잦았다"며 "이틀 간 6000회 이상의 낙뢰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체전선상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수 발달 구조는 중규모 저기압에 의해서 촉발되는 강한 대류 불안정이 동반된 것이라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무안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무안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 및 음주운전 사고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보성경찰, 공군부대 방문 교통사고 및 마약범죄 예방 교육

보성경찰서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난 27일별교을 공군 부대원 5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수칙과 마약, 성폭력 관련 스토킹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나주경찰, 2023 치안종합성과관리 전략보고회 개최

나주경찰은 28일 나주경찰서장과 각 과 계장, 지포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치안종합성과평가 성과관리 전략보고회(3차)를 개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강진소방 전문의용소방대, 주택화재안전 서비스 추진

강진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은 17일 강진군 울천면 연동마을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대상으로 화재안전물품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안전 서비스를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소방, 광양용강초등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광양소방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에 걸쳐 용강초등학교를 방문해 4~6학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광양=김현근기자



담양소방, 밤사이 폭우 피해현장 구조활동 펼쳐

담양소방서는 지난 27일 밤부터 내린 폭우로 담양, 곡성군 지역 곳곳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해 긴급복구·구조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3년 전에도 무너졌는데 또” 주택 덮친 소나무에 밤잠 설친 주민들

주택 덮치면서 산사태 우려...주민 12명 긴급대피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산이 무너졌네요.”

28일 오전 광주 동구 소태동 한 야산 주변 빌라촌, 이날 새벽 쏟아진 폭우를 이기지 못한 소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며 주택을 덮친 사고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피해를 입은 주택 지붕에는 날이 밝도록 치워지지 않은 소나무가 기왓장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쓰러진 충격으로 뜯겨나간 가지 일부가 아래쪽 주택 지붕에서 나뭇구멍을 등 이날 새벽 사고 여파는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물러진 지반 탓에 토사가 쏟아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피해 주택 주변에는 출입통제선이 쳐졌다. 거리를 지나는 주민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산쪽을 향해 지어진 주택들을 바라봤다.

피해 주택에 살고있는 정모(54·여)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른 새벽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겨우 귀가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붕을 덮친 소나무로 이수라장이 된 집 안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이곳에서는 야산에 심어진 소나무가 주

택을 덮쳐 지붕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구와 소방 당국 등은 산사태 우려 상황에 따라 일대 주민 12명을 대피시켰다. 대부분이 친척과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해 주택은 야산을 바로 등지고 있는 가파른 오르막길에 지어졌다. 직접 피해를 입은 곳처럼 산을 등진 채 지어진 주택이 주변에 십 수 개에 달한다. 해당 주택들은 등을 돌리면 바로 야산인 탓에 산사태 위험에 취약하지만 이렇다 할 방재 시설을 갖춘 곳은 드물다.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피해 주택에서 10년째 살아온 정씨는 지난 2020년에도 폭우에 쓰러진 소나무가 안뜰을 덮치는 피해를 내야 산 주인과 관련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고 당시에는 정씨가 집을 비우고 있었던 탓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우마다 사고가 반복될 것이 점차 우려스럽다는 것이 그의 하소연이다. 정씨는 현재 동생의 집에서 머물며 기약없는 귀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씨와 함께 대피한 신모(64·여)



씨는 지난 40여년 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산사태 우려에 따른 대피 상황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정씨의 주택 바로 아래 집에 살고 있던 신씨는 사고 시각 소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외침 덕에 겨우 대피할 수 있었다.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나온 신씨는 동구문화센터에서 머물고 있다.

주민들은 산사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산하 5개구는 매년 지역 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가 난 곳 주변은 지난해 9월 공표된 취약 지역 96곳에 포함되지는 않는 곳이다.

이슬비기자

동거하던 여성 살해 후 자살 시도 30대, 구속

동거 중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최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의도를 의심하던 그는 B씨가 밤늦게 귀가하자 화가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자기 가족들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유족 진술 취취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보다 구체화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판매동 수산물 코너를 찾은 한 시민이 안전한 수산물 관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